



선거에서 인재를 뽑는 4가지 기준 - 신언서판(身言書判) -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다. 그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능력과 도덕성, 책임감과 성실함, 거기에 인성까지 모두 갖춘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비로소 국민의 옳은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일신의 영광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면 개인에게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비전과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비판만 일삼는 사람, 유권자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온갖 달콤한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 이념과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적인 해결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 학

벌과 학력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이미지 치장에만 신경 쓰고 본질의 수준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할 후보들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選舉)’라는 단어는 오래된 동양의 인재 선발 원칙이다. 선거의 선(選)은 위에서 가려 뽑는다는 뜻이고, 선거의 거(擧)는 아래에서 추천하여 뽑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위에서 인재를 선발하거나, 아래에서 인재를 천거한다는 뜻이다. 선발과 천거, 인재는 위로 는 하늘, 아래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비로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재만이 선거에서 발탁되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당나라 때 인재를 뽑던 제도에 관한 기록 중, <당서(唐書)> 선거지(選舉志)가 있다. <선거지> 기록에 보면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 평가의 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있다. 품모(身), 언변(言), 글씨(書), 판단력(判) 이 네 가지를 잘 살



펴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한다. <선거지>에 나오는 신언서판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一曰身 言體貌豐偉>. ‘첫째는 몸 신자. 신(身)이니 그 사람의 풍채와 용모를 보아야 한다.’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용모란 겉모습이 그저 잘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감이 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미지메이킹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랜 삶의 흔적이 용모와 동작에 그대로 배어있다. 그가 살아오면서 처신했던 순간순간이 그의 몸과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용모와 관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또 다른 흔적이다.

<二曰言 言言辭辨正>, ‘둘째는 말씀 언자, 언(言)이니, 말씀씨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수사력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에 힘이 느껴지고 정직함이 보여야 한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에 조리가 없고, 전달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언어 사용이 저속하거나 비열하면 역시 좋은 인재로서 자격 조건 미달이다. 교언(巧言)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방 가슴에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인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三曰書 言楷法迺美>, ‘셋째는 글 서(書)자, 글씨니, 반듯하고 문장이 아름다워야 한다.’ 예로부터 글씨와 글은 그 사람의 됬됨이를 말해주는 것이라 한다. 그가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서적을 많이 읽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글이 화려하다고 해서 명문이라 할 수 없다. 진심이 느껴지는 글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볼 수 있다. 글씨는 그 사람의 인품을 잘 나타낸다. 요즘 서체학에서도 글씨를 보면 그 글씨를 쓴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四曰判 取其文理優長>. ‘넷째는 판단할 판자, 판(判)이니, 문리가 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풍모가 있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정확한 판단력이 없으면 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다. 판단은 위기에서 빛이 난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판단력의 기본이다. 리더의 판단은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잘못된 리더의 판단이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속에서 무수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상 네 가지 사람을 판단하는 조건을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하여 당나라 이후 인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신언서판 네 가지를 고루 잘 갖추고도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인성(人性)이다. 몸 멀쩡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부족하면 나라를 망치고 국기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감 능력이다.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허투루 판단하여 잘못 뽑았다가는 역사가 거꾸로 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다. **KMIF**